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인연을 찾는 이들에게 '친절한 사람' 되기를 당부했다.



각기 다른 기수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은 이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 한해를 뜨겁게 달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나는 절로'가 12월 14~15일 총동창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남자 15명, 여자 11명이 참여한 프로그램에서 커플 총 5쌍이 탄생했다.



참가자들은 레크레이션 등 활동을 통해 서로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마음에 둔 참가자에게 곧장 다가가 선물을 전했다.

'나는 절로' 동문 한자리…"진실된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조계사사회복지재단 '나는 절로, 총동창회' 현장

충남 공주=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나는 절로'는 일반적인 소개팅 프로그램처럼 가식적인 연출이나 따라야 하는 스토리가 없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나타내고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전폭적인 커플 성사 지원과 사후관리까지 해줘 자신 있게 교류할 수 있었어요."

'사찰 소개팅'이라는 참신한 아이템으로 국내외적 이슈를 몰고 온 '나는 절로'가 총동창회를 끝으로 2024년 한해 활동을 회향했다. 참가자들은 '나는 절로'가 사찰이라는 공간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회고했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복지재단)은 지난해 12월 14~15일 이틀간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나는 절로, 총동창회'를 개최했다. 올해 4월부터 시작해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2024년 '나는 절로'가 한겨울 만남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총동창회에는 강화 전등사,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양양 낙산사, 서울 화계사, 장성 백양사에서 인연을 만나지 못한 참가자 중 26명(여자 11명, 남자 15명)이 다시 모였다. 참가자들은 두 번째 '나는 절로' 참여 계기가 사찰이 주는 '편안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란(한국문화연수원)은 "법회에 참여한 뒤 사찰 주지스님과 차담에서 인생에 대한 많은 조언을 얻고,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경험이 많다"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고민과 생각에 사려 깊은 조언을 해주는 스님들이 주최하는 프로그램이다보니 믿음을 갖고 찾아올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수(한국문화연수원)는 "사찰에 오면 고즈넉한 분위기에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 편안함 때문에 예민하지 않고 온전한 내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대방에게 진실한 나를 보여줘서 수월한 관계 형성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만남의 기회가 많지 않은 현대 사회에 사찰에서 적극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해줘 편안한 마음으로 교류할 수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나는 절로에서 인연을 만나고 싶다'는 공통점 하나로 모인 참가자들은 서로의 '출신'을 물으며 참여 계기와 지난 기수 커플 성사 여부를 물었다.

낙산사 편에 참여했던 직녀4호는 "프로그램 당시 느꼈던 긍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가 좋아서 총동창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작에 앞선 입재식에서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2024년 한해 '나는 절로' 프로그램이 성공가도를 이어왔는데, 이번 '나는 절로' 총동창회를 통해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 더 큰 소통의 장을 이루길 바란다"면서 "총동창회에 함께 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따듯한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한국문화연수원 본부장 금오 스님도 "지난 6월에 이어 총동창회까지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자리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면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 연말에 좋은 추억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마곡사를 가기 위해 손을 잡고 돌다리를 건너는 참가자 한 쌍의 모습.

커플 5쌍 탄생, '인연 맛집' 재확인
운동회, 선물전달 등 행사로 활기↑
묘장 스님 인생상담소, 고민 해결도
'결혼' 고찰 토론회… 문제 해결 연구
참가자들 "가식없는 만남의 장으로 진실된 나와 상대를 만날 기회였다"

총동창회 참가자들은 묘장 스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인연과 삶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면 묘장 스님이 그에 대한 답을 남기는 '인생상담소'에서 참가자들은 저마다 다른 질문을 남겼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점이 무엇일까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을 키우는 방법이 있나요?" "이성에게 호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의 질문을 두고 묘장 스님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묘장 스님은 "모든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알아보고 자신과 다르면 '이상하다'고 여긴다.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을 볼 때,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을 볼 때 모두 이것을 똑같이 느낀다"면서 "내가 먼저 반듯한 사람이 되면 내가 느끼기에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레 다가올 것"이라고 전했다.

'인생상담소'를 마친 참가자들은 지난 기수에서 참여했던 '나는 절로'표 레크레이션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기도 했다. MC 심목민의 주도로 진행된 '야단법석 절로스피릿'에서 참가자들은 공 만들기, 줄넘기, 카드 뒤집기, 신발 멀리 던지기, 꼬리잡기 등 학교 운동회를 방불케 하는 활동으로 더욱 친밀해졌다. 영화 장면 재현하기 코너에서 남자 참가자들이 여자 참가자를 대신해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다음날인 15일 아침, 참가자들은 눈 내린 길목을 지나 마곡사로 향했다. 연수원과 인접한 마곡사는 조선 왕실에서 꼽았던 명당으로 김구 선생이 잠시 주석했던 사찰이기도 하다.

마곡사 대웅전을 참배한 한 참가자는 "마곡사 대웅전 기둥을 쥐고 세 바퀴 돌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 삼배하고 기둥돌이를 했다"며 "처음에는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빌었는데, 제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묘장 스님의 조언이 생각나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빌었다"고 웃어보였다.

총동창회에서는 '이판사판 결혼이야기'라는 토론과 발표의 시간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결혼'을 주제로 한 질문 다섯 개에 저마다 답변을 남기고 발표해야했다. △결혼에 필요한 비용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 △결혼에 대해 내가 가진 문제점 △결혼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 △새로운 결혼 형태 등 질문을 두고 조별 토론을 시작한 참가자들은 사뭇 진지한 모습으로 결혼에 대해 고찰했다.

다섯 조의 조장들은 고민한 흔적이 남은 전지를 들고 앞으로 나가 발표했다. 특히 '가치관' 부분에서 열띤 토론을 펼친 참가자들은 종교, 자녀 유무, 경제관념, 가정환경, 식습관 등을 결혼 전에 대화 알아봐야 할 가치관 요소로 짚었다. 발표를 맡았던 선재(전등사)는 "우리가 가진 현재와 미래 가족을 위해 가치관에 대한 대화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재단은 총동창회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1만원 이하의 선물 준비를 요청했다. 프로그램 이틀을 거치며 마음에 둔 참가자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다. 한 자리에 모인 참가자들은 호명될 때마다 호감 있는 참가자에게 선물을 건넸다. 쌍방 선물교환으로 성사된 커플 총 4쌍과 더불어 비밀리에 복지재단 측에 서로에 대한 호감을 나타낸 1쌍까지 총 5쌍이 총동창회에서 커플로 성사됐다.

모든 활동을 마친 후 회향식에서 복지재단 사무처장 덕운 스님은 "이번 총동창회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형성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자 기획됐다"며 "이 자리에 참여해 빛내 준 여러분에 감사하고, 만약 총동창회에서 인연을 찾지 못했더라도 부처님 가피 아래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재단의 '나는 절로'는 2024년 한해 3000여 명의 신청이 몰리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7월 '인구의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10월에 있던 '아이가행복입니다 어워즈' 환경 조성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내년인 2025년에는 하동 쌍계사를 시작으로 김천 직지사, 남양주 봉선사 등 지역과 함께하는 '나는 절로'가 될 예정이다.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승정원장 월해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감찰원장 성호
종회의장 법륜
호법원장 해월
포교원장 덕해
교육원장 영호
감찰부장 경오
호법부장 문경
포교부장 장문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경북교구원장 천호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각 원장 및 부장의 공란은 이중승적으로 제적 되었음을 알립니다.

한마음 108종도 일동

종도모집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서울 총무원 : 전화 02)739-4780, 010-3870-0021

(주) 한국탑뉴스신문사

KTM 미디어 방송

기업 이벤트 사업. 유튜브라이브 방송 제작.
방송업. 광고업. 현재 130개의 업체에 보도자료송출.
사찰홈페이지 전문 제작 등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는 KTM 미디어 방송
방송 송출은 준비중에있으니
2월중에 송출가능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www.koreatopnews.net

사업처 서울 02-739-4780 부산 051-625-0776
진주 055-746-9778 남해 055-867-0024